

주간 통일정세

2017-34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8.20	北 박봉주 총리, 바르셀로나 테러 위문전문(연합뉴스)
	8.21	北, UFG 개시 보도...“한반도정세 예측 불가 위기”(연합뉴스)
	8.22	北, 다음 달 유엔총회에 리용호 참석 통보...메시지 주목(연합뉴스)
	8.23	김정은 “고체엔진·탄두 팡팡 생산해야”...화학재료연구 시찰(연합뉴스)
	8.24	北 신문, 중·러 겨냥 “과거 생각 않고 제재소동 합세”(연합뉴스)
	8.25	北, 중·러 겨냥 “올챙이적 생각 못해...양심 있느냐” 비난(연합뉴스)
군사	8.20	美 핵심지휘관들 UFG연습 맞춰 속속 방한...대북 억제 메시지(연합뉴스) 해리스 美 태평양사령관 “철통같은 안보 공약 변함없어”(연합뉴스)
	8.21	한미, UFG연습 돌입...北도발 대비 감시태세 강화(연합뉴스) 美 국방장관, UFG훈련 미군 규모 축소는 “북한과는 무관”(연합뉴스)
	8.22	“北 김정은, 이달 초 중부전선 GOP 약 1km 전방까지 잠행”(연합뉴스)
		北 매체, 광 ‘미사일 위협’ 영상 공개...“시간은 미국편 아냐”(연합뉴스)
		美 태평양사령관, 정경두 합참의장 면담...방위태세 강화 논의(연합뉴스)
		미군 핵심수뇌부 “한국방어 모든 역량 제공...외교가 중요”(연합뉴스)
	8.23	北, 미공개 신형 SLBM ‘북극성-3형’ 정보 노출(연합뉴스)
	8.20	北 잡지, 상업은행 운영 확인...“독립채산제 방식”(연합뉴스)
경제	8.21	日 언론 “올 상반기 러시아 대북 석유제품 수출 2배로 급증”(연합뉴스)
	8.23	“말레이시아, 올해 北서 석탄 78만 달러어치 수입”(연합뉴스)
		“상반기 러시아의 대북 수출액 작년대비 96% 증가”(연합뉴스)
	8.24	中 해관총서 “대북제재로 6월~7월 북중 교역액 감소”(연합뉴스)
		러시아에 북한 여행사 처음으로 문 열어...“北 관광상품 직접 판매”(연합뉴스)
사회 문화	8.20	北, 대학생체육경기 개최(연합뉴스)
	8.23	“북한에 450개 시장 운영...시장화가 북한 변화의 핵심”(연합뉴스)
		北, 평양마라톤 10월에도 계속...외국인 참가자 모집(연합뉴스)
		북한내 마약거래 심각한 듯...“엘리트층 포함 반사회적 행위 퍼져”(연합뉴스)
		北, 제재 속에 투자세미나·상품전람회 등 잇따라(연합뉴스)
외교 국방	8.19	北 “‘작용-반작용’ 북미관계 법칙...적대정책 철회, 美숙명”(연합뉴스)
		北 신문 “美군사행동 가담 않는 한 어떤 나라도 핵위협 안 해”(연합뉴스)

		北, 美의 北-중남미 관계단절 요구에 “내정간섭” 비난(연합뉴스)
		北, 국제사회 北책임론에 반발…“美엔 한마디도 못하면서”(연합뉴스)
8.20		北 신문 “UFG는 불에 기름 끼얹는 격…정세 더 악화시킬 것”(연합뉴스)
8.21		北, UFG 직접 언급 없이 통상적 대미 비난 이어가(연합뉴스)
		“왕이 中외교부장, 리용호 北외무상에 도발중단 엄중경고”(연합뉴스)
		BBC 내달 대북방송 개시…“북한주민에 객관적 정보 전파”(연합뉴스)
8.22		北, UFG에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 면치 못할 것” 위협(연합뉴스)
		美 상원의원 “선제타격은 해법 아니야…대화가 유일한 길”(연합뉴스)
		“북한, 시리아 화학무기 개발기관과 두 차례 거래 적발”(연합뉴스)
		美 군축대사 “북한 위협 대응, 트럼프 최우선순위”(연합뉴스)
		북한 “핵 억지력 강화는 정당한 자기방어…핵무장 포기 안 해”(연합뉴스)
8.23		美 국무장관 “北 도발 자제에 만족…대화의 길 신호 기대”(연합뉴스)
		러시아 대규모 무기전시회에 북한 대표단 참석(연합뉴스)
		英 외무부 “필수적 경우 제외한 모든 北여행 자제”(연합뉴스)
		北 단체, UFG 연습 비난…“경거망동 말아야”(연합뉴스)
8.24		北 단체, 미군 수뇌부 방한 비난…“침략전쟁 행각” 주장(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8.23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8. 23.

■ 김정은 “고체엔진·탄두 광광 생산해야”…화학재료연구 시찰(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소재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밝힘.
- 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며 “연구소에서는 ‘화성’계열 로켓들의 열보호 재료와 전투부(탄두부), (엔진) 분출구 재료를 비롯하여 각종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에 쓰이는 여러 가지 화학재료들에 대한 연구 개발과 생산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함.
- 통신은 “특히 연구소에서는 최근 연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대륙간탄도로켓의 전투부 첨두와 고체 발동기(엔진) 분출구 제작에 이용하는 최첨단 재료인 ‘3D탄소/탄소-탄화규소’ 복합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국산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첫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에서 대성공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힘.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8. 20.

■ 北 박봉주 총리, 바르셀로나 테러 위문전문(연합뉴스)

- 박봉주 내각 총리가 지난 18일 바르셀로나 연쇄 차량 테러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위로하는 전문을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에게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리용호 외무상도 같은 날 알폰소 다스티스 스페인 외무장관에게 위문 전문을 보냄.

2017. 8. 22.

■ 北, 다음 달 유엔총회에 리용호 참석 통보…메시지 주목(연합뉴스)

-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다음 달 12일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하는 제72차

-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21일(현지시간) 전해짐.
-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유엔 사무국 측에 리용호 외무상의 참석을 통보하는 한편, 총회 기간인 19~25일 열리는 ‘일반토의’(general debate)에서의 기조연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리 외무상이 직접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외무상을 파견하기는 2014년 이후 4년 연속인데, 2014년과 2015년에는 리수용(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당시 외무상이 유엔 본부를 찾아 강하게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함.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8. 21.

■ 北, UFG 개시 보도…“한반도정세 예측 불가 위기”(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21일) 남측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21일 공화국을 핵 선제공격하기 위한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끝내 벌여놓았다”라고 전함.
- 통신은 “더욱 엄중한 것은 전쟁연습 전야에 미 태평양사령관과 전략사령관 등 미군의 거두들이 남조선에 날아들고, 지난해에 비해 해외로부터 훨씬 더 많은 미군 병력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을 비롯한 7개의 추종국가 군대들이 기어든 것”이라고 비난함.
- 이어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북침 전쟁연습을 시작한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깔려있다”며 “지금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 정세는 전쟁 미치광이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함.

2017. 8. 24.

■ 北 신문, 중러 겨냥 “과거 생각 않고 제재소동 합세”(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에 협력하면서도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난함.

- 신문은 이날 ‘공정성을 저버린 허수아비 기구’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논평에서 안보리의 최근 대북결의 채택을 거론하며 “반(反)공화국 제재결의 조작에 공모한 나라들이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을 떠들었지만 결과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먹장구름만 짙게 드리우게 하였다”고 주장함.
- 신문은 “지금의 핵보유국들 가운데는 ‘바지를 팔아서라도 핵을 가져야겠다’고 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무릅쓰고 핵보유의 꿈을 실현한 나라도 있으며 현재 미국의 끈질긴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언급함.

2017. 8. 25.

■ **北, 중·러 겨냥 “올챙이적 생각 못해…양심 있느냐” 비난(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담은 국제문제연구원 박사 정명철 명의의 ‘진실을 가려보는 눈이 흐려지면 불의가 판을 치기 마련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전함.
- 논평은 구체적인 국가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일부 주변 대국들은 악화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에 대한 책임이 조선(북한)에도 있고 미국에게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조선을 핵 보유으로 떠민 장본인으로, 조선반도 정세를 항시적인 긴장 국면으로 몰아온 호전국가”라고 주장함.
- 이어 “유엔과 미국의 강권에 굴복하여 그에 극구 추종하는 덩치 큰 주변 나라들의 온당치 못한 행태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더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협력을 우회적으로 비난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8. 22.

■ **“北 김정은, 이달 초 중부전선 GOP 약 1km 전방까지 잠행”(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달 초 보름간 종적을 감췄을 때 중부전선 최전방 지역까지 잠행했던 것으로 알려짐.

- 군 당국은 북한 매체에서도 보도하지 않은 이 ‘암행시찰’을 특이한 비공개 활동으로 간주하고, 기습적인 북한의 전술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짐.
- 22일 북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달 초 중부전선 연천지역의 우리 군 GOP(일반전초)에서 약 1km 떨어진 최전방 북한군 소초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가 최전방 북한군 부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자세히 식별되지 않았으나 북한군 나름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모종의 임무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北 매체, 광 ‘미사일 위협’ 영상 공개…“시간은 미국편 아냐”(연합뉴스)

-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통한 광 ‘포위사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선전매체를 통해 광 타격을 위협하는 영상을 공개함.
-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9일 유튜브 계정에 광 영토에 대한 위협적 언사와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22일 확인됨.
- ‘밤잠 설치게 된 미국인들,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라는 제목의 영상은 3분 47초 분량으로 북한 김락겸 전략군 대장의 최근 광 포위사격 관련 발표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의 ‘위용’이 북 전략군사령관의 발표 한마디에 폴삭하는 느낌”이라고 주장함.

2017. 8. 23.

■ 北, 미공개 신형 SLBM ‘북극성-3형’ 정보 노출(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소식을 전하며 아직 시험 발사하지 않은 고체연료 계열 ‘북극성-3형’ 미사일 관련 정보를 노출함.
-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사진에는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김 위원장의 오른쪽 벽면에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고 적힌 설명판이 붙어 있는 모습이 보임.
- 설명판에는 북극성-3형 미사일의 구조 등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종류의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북극성-3형 미사일과 관련된 내용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은 처음임.

나. 한국 및 미국

2017. 8. 20.

■ **美 핵심지휘관들 UFG연습 맞춰 속속 방한…대북 억제 메시지(연합뉴스)**

- 2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계기로 미군 핵심 지휘관들이 속속 방한해 주목됨.
- 20일 동시에 방한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존 하이텐 미국 전략사령관은 UFG 연습을 참관할 예정이며,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새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방어청(MDA) 청장도 참관이 예상됨.
- 특히 그리브스 청장은 우리 군 및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미사일방어(MD)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짐.

■ **해리스 美 태평양사령관 “철통같은 안보 공약 변함없어”(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20일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으며,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오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과 무모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국방부가 전함.
- 해리스 사령관은 “핵·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라도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면서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헌신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함.

2017. 8. 21.

■ **한미, UFG연습 돌입…北도발 대비 감시태세 강화(연합뉴스)**

-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21일 시작됐으며, 오는 31일 까지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는 우리 군 5만여 명과 미군 1만 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명 포함) 등이 참가하는데, 미군 참가 인원은 지난해보다 7천 500명이 줄었음.
- 실기동 훈련이 아닌 ‘위계임’으로 진행되는 UFG 연습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15’와 한미 공동의 맞춤형억제전략을 토대로 이뤄지며, 한미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3단계별 억제 전략을 실제 작전에서 실행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해놓고 있음.

-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전쟁 징후가 보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되 실패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짐.

■ 美 국방장관, UFG훈련 미군 규모 축소는 “북한과는 무관”(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참가 미군 병력을 축소할 것은 북한의 반발 등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가운데 백악관 내에선 UFG를 전후해 대북 예방 공격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옴.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참가 병력 수는 올해 훈련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지, 북한발(發) 요인에 대응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힘.
- 매티스 장관은 “지금 이 훈련은 우리가 한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에는 지휘부 중심 훈련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으며, “수십 년간 계속된 이 훈련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북한의 오관을 허용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함.

2017. 8. 22.

■ 美 태평양사령관, 정경두 합참의장 면담…방위태세 강화 논의(연합뉴스)

- 한국을 방문 중인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이 22일 정경두 합참의장과 만나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정 의장과 해리스 사령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합참과 미 태평양사령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합참은 설명함.
- 두 사람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당장 오늘 밤이라도 적과 싸울 수 있는 대비태세)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방안도 논의함.

■ 미군 핵심수뇌부 “한국방어 모든 역량 제공…외교가 중요”(연합뉴스)

- 미국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 핵심 수뇌부가 22일 한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함.
-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은 이날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공군 중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방어를 위해 미 전략사령부가 가진 우주, 사이버, 억제, 미사일방어 등 모든 역량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한국과 괌 등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 등 미사일방어 자산을 거론하고 “우리의 미사일방어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함.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7. 8. 20.

■ 北 잡지, 상업은행 운영 확인…“독립채산제 방식”(연합뉴스)

- 북한에서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상업은행을 운영하며 금융수입을 창출하는 사실이 북한학술잡지를 통해 확인돼 눈길을 끄는데, 특히 북한의 상업은행들은 상대적이지만 독자적인 경영권을 갖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짐.
-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7년 2호(6월 10일 발행)에 실린 ‘현금계획은 발권과 통화조절의 기초’라는 제목의 논문은 “지방, 지역의 상업은행들이 현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야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고 발권과 통화조절 과제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라며 지방 상업은행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함.
- 이어 “오늘 상업은행은 독립채산제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맞추면서 현금 거래 사업을 조직하고 있다”라며 상업은행이 자율성을 갖고 금융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힘.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8. 21.

■ **日 언론 “올 상반기 러시아 대북 석유제품 수출 2배로 급증”(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러시아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은 작년 동기의 갑절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함.
- 산케이는 러시아 연방세관의 통계를 인용해 이 기간에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가솔린, 디젤 연료 등 석유 제품이 4천 304톤(t), 240만 달러(약 27억 4천만원) 상당이라고 전했는데, 작년 동기 2천 171t, 98만 달러(약 11억 2천만원)에 비해 2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임.
- 산케이는 러시아가 수출입 등 경제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반대해왔으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에도 석유 관련 제품의 무역 제재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소개함.

2017. 8. 23.

■ **“말레이시아, 올해 北서 석탄 78만 달러어치 수입”(연합뉴스)**

- 말레이시아가 올해 북한으로부터 석탄 약 78만 3천 달러어치를 수입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전함.
- 이 방송은 말레이시아 통계부 자료를 인용해 “말레이시아는 지난 3월 북한산 무연탄을 사들였지만 정확한 수입량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보도함.
-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유엔 회원국의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 상황에 따르면 지난 3월 1개 나라가 해당 품목 약 50만 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통계와 말레이시아 정부 집계 사이에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고 이 방송은 밝힘.

2017. 8. 24.

■ **“상반기 러시아의 대북 수출액 작년대비 96% 증가”(연합뉴스)**

- VOA는 러시아 연방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약 6천 100만 달러(69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양국 교역액인 3천 500만 달러보다 72.9% 증가한 액수임.
- 이는 러시아의 대(對)북한 수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올해 상반기 러시아의 대북 수출액은 약 5천 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5%

증가함.

- 수출액 1위 품목은 유연탄(3천 600만 달러 상당)이었고 갈탄(1천 100만 달러 상당), 원유를 제외한 석유(240만 달러 상당)가 뒤를 이었으며, 원유의 경우 7만 6천 달러 상당(165t)이 러시아에서 북한에 수출됐다고 VOA는 밝힘.

■ 中 해관총서 “대북제재로 6월→7월 북중 교역액 감소”(연합뉴스)

-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무기 개발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라 지난 7월 중국의 대북 교역액이 전달에 비해 감소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함.
-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4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격) 발표를 인용해 7월 중국의 대북 수출입액이 4억 5천 600만 달러(약 5천 144억 6천만원)를 기록해 한 달 전인 6월의 4억 8천 900만 달러(약 5천 516억 9천만원)보다 6.7% 감소했다고 전함.
- 신문은 북한산 철광석 수입이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로 감소했고, 중국의 대북 휘발유 수출도 2016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으며, 7월 중국의 대북 수입액이 1억 5천 600만 달러(약 1천 759억 9천만원)로 전달에 비해 3% 감소했고, 1년 전보다 3분의 1 정도 하락함.

■ 러시아에 북한 여행사 처음으로 문 열어…“北 관광상품 직접 판매”(연합뉴스)

- 러시아에서 북한 여행사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일부 러시아 여행사들이 취급해 오던 북한 관광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한 것임.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부의 승인 아래 대사관의 지원을 받는 공식 여행사인 ‘엔코리안’(NKOREAN)이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힘.
- 여행사 사무실은 모스크바 남쪽 ‘레닌스카야 슬로보다’ 거리에 자리 잡았으며, 여행사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방북 비자 신청 대행과 항공권 판매 등의 기술적 업무는 물론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도 보장한다고 대사관측은 설명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2017. 8. 23.

■ “북한에 450개 시장 운영…시장화가 북한 변화의 핵심”(연합뉴스)

- 23일 경기 수원시가 전통식생활체험관에서 개최한 ‘2017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정책세미나’에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북한은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핵심은 시장화”라면서 이같이 밝힘.
- 이날 김 소장이 발표한 ‘북한의 변화와 대응과제’에 따르면 2003년 이전 시·군당 1개였던 북한의 시장이 시·군당 2개 이상으로 늘어 현재 북한 전역에 적어도 450개 이상이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됨.
- 2003년 이전에는 소비재시장만 있었지만, 현재는 소비재시장과 생산재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등 5대 시장이 연계된 형태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8. 20.

■ 北, 대학생체육경기 개최(연합뉴스)

- 9월 5일상 대학생체육경기 대회가 평양시 곳곳에서 19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대외 선전용 사이트 ‘조선의 오늘’이 20일 소개함.

2017. 8. 23.

■ 北, 평양마라톤 10월에도 계속…외국인 참가자 모집(연합뉴스)

- 북한이 매년 4월 평양에서 개최해 온 마라톤 대회를 올해부터는 10월에도 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과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전문 여행사 ‘우리 투어스’(Uri Tours)는 홈페이지에 최근 올린 여행상품 소개글에서 “인기 수요에 따라 평양마라톤이 이제 연 2회 열리게 됐다는 사실을 알린다”며 “첫 ‘10월 평양마라톤’은 올해 10월 22일

열릴 것”이라고 밝힘.

- 이 여행사는 지난 1일 회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올해 10월 22일은 사상 첫 10월 평양마라톤의 개최일로, 외국인 주자들에게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으며, “이번 대회는 4월 경기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북한 주자들과 바로 옆에서 달리며 보다 친밀한 현지 마라톤 분위기를 느낄 경험이 될 것”이라고도 전함.

■ 북한내 마약거래 심각한 듯…“엘리트층 포함 반사회적 행위 퍼져”(연합뉴스)

- 북한에서 마약류 거래가 북중 접경은 물론 도시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엘리트층이 포함됐을 정도로 광범위한 확산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북한 정부기관의 강연기록을 인용해 23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북한의 비밀경찰조직인 국가보위성이 작년 여름 평안남도의 A시에서 개최한 강연 기록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반사회적인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함.
- 국가보위성의 강연 기록을 보면 작년 5월 ‘70일 전투’ 기간 중 A시에서 마약밀매로 적발된 사람은 200명, 주변 지역까지 합치면 그 수가 500명에 달한다고 적혀 있으며, 마약류 제조에서 도매판매까지 관계된 한 핵심 인물은 “당과 사법기관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가족과 친척이 많은 인물”이라고 소개함.

■ 北, 제재 속에 투자세미나 상품전람회 등 잇따라(연합뉴스)

- 최근 강화된 대북제재 와중에도 북한이 다음 달 하순 외국인들을 초청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 관련 행사와 국제상품전람회 등 여러 국제행사를 열 계획인 것으로 24일 나타남.
- 캐나다의 대북교류 단체 ‘백두문화교류사’(PCE)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원산-금강산 특수경제지대 투자에 대한 세미나와 2017 평양 국제상품전람회에 외국 방문객들이 초청됐다”고 밝힘.
-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은 다음 달 22~26일 진행되는데, 참가자들은 북한 대외경제성과 원산지구개발총회사가 주최하는 원산-금강산 투자세미나에 참가한 뒤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참석하게 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8. 19.

■ 北 “작용·반작용’ 북미관계 법칙…적대정책 철회, 美속명”(연합뉴스)

- 북한 사회과학원의 김웅철 연구사는 19일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에 게재한 글에서 “작용과 반작용이 자연계의 역학적 법칙이라면 미국의 도발수위가 높아질수록 조선(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응이 보다 강력해진다는 것은 조미(북미) 대결관계에서의 역학적 법칙”이라고 주장함.
- 김 연구사는 “21세기의 조미 대결 과정만 놓고 보아도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미국의 분석가와 언론을 인용, 부시·오바마 전 미 행정부를 사례로 들었음.
- 그는 “(미 분석가·언론이) 부시의 강권과 전횡이 조선을 핵 보유로 떠밀었다면 오바마의 정책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로켓 기술을 보다 향상시키고 핵탄두를 소형화, 다중화하는 데로 나가도록 하였으며 그것이 미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도록 하였다고 아부재기를 친(엄살을 부린)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함.

■ 北 신문 “美군사행동 가담 않는 한 어떤 나라도 핵위협 안 해”(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미국의 반(反)공화국 군사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 신문은 이날 ‘흑백을 전도하는 강도적 논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공화국의 핵 무력 강화 조치들은 미국의 무분별한 핵전쟁 도발 책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세계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힘.
- 신문은 이어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위협 때문에 마치도 세계에 큰 위험이 닥쳐온 것처럼 아부재기를 치고(엄살을 부리고) 있다”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저들의 반공화국 소동에 끌어들여 어떻게 하나 우리의 핵 무력 강화를 막아보자는 것”이라고 비난함.

■ 北, 美의 北-중남미 관계단절 요구에 “내정간섭” 비난(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19일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북 외교·통상관계 단절을 요구한 데 대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며 국제법과 국제질

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반발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관련 질문에 “이러한 강권 행위는 온 세상을 희생시켜 제 잇속을 차리려는 미국의 극단한(극단적인) 이기심과 오만성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여 감행하고 있는 강도적인 제재압박 책동을 묵인 허용한다면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내정간섭 행위의 피해자로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각국에 압박함.

■ 北, 국제사회 北책임론에 반발…“美엔 한마디도 못하면서”(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유엔 사무총장과 호주 총리가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북한 책임론을 거론하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조한 것에 강하게 반발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유엔 사무총장은 조선반도 정세 격화가 우리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면서 “핵 문제가 발생하고 정세 격화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근원은 모두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있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유엔 사무총장이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함.

2017. 8. 20.

■ 北 신문 “UFG는 불에 기름 끼얹는 격…정세 더 악화시킬 것”(연합뉴스)

- 북한은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작을 하루 앞둔 20일 UFG가 “불에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행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을 겨냥, “트럼프 패거리들이 참수작전과 특수작전, 대북선제 타격과 예방전쟁의 필요성에 대해 떠들어대는 속에 모험적인 반공화국 핵전쟁 연습을 공언해 나선 것은 정세를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핵전쟁 발발국면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추태”라면서 이같이 비난함.
- 신문은 “침략각본들을 완성하기 위한 반공화국 합동군사연습은 우리에게 대한 적대 의사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이라며 “그것이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위협함.

2017. 8. 21.

■ 北, UFG 직접 언급 없이 통상적 대미 비난 이어가(연합뉴스)

- 북한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 개시일인 21일 오후 4시까지 이 훈련에 대한 언급 없이 일상적인 대미 비난을 이어감.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는 선택한 길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미국은 이제라도 저들이 어떤 상대와 맞다 들었는가(마주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며 “미국의 가소로운 위협과 허세가 통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협상탁에 절대로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우리 천만 군민의 철의 의지가 시간이 흐를수록 굳세지고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

2017. 8. 22.

■ 北, UFG에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 면치 못할 것” 위협(연합뉴스)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이날(22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제 호전광들이 현 상황에서 심중하게 행동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협천만만 군사적 도발을 걸어온 이상 무자비한 보복과 가차없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이번 연습과 관련,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첨예해진 지금의 상황에서 남조선에 집결된 이 방대한 무력이 실전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변함.
- 특히 이번 연습을 맞아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과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MDA) 청장 등 미군 수뇌부가 잇따라 방한한 것을 거론하며 “사태의 엄중성을 더욱 배가해주고 있다”고 밝힘.

■ 美 상원의원 “선제타격은 해법 아니야…대화가 유일한 길”(연합뉴스)

-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의원(민주)은 22일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은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대화가 북한 비핵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밝힘.
- 미국 상하원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중인 마키 의원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대북) 선제타격은 절대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북) 군사적 해법은 없다는 것이 우리(방한한 의회 대표단)의 메시지”라고 강조함.

- 마키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경제적 압박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함.

■ 美 군축대사 “북한 위협 대응, 트럼프 최우선순위”(연합뉴스)

-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미국과 우방을 보호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고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군축담당 대사가 밝힘.
- 로버트 우드 군축담당 대사는 22일 유엔 후원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미국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향한 길도 여전히 선택권으로 남아 있다”고 말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침.
- 우드 대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지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본토와 미국 영토, 우방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함.

■ 북한 “핵 억지력 강화는 정당한 자기방어…핵무장 포기 안 해”(연합뉴스)

- 북한이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륙 간 로켓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자기방어를 위한 정당하고도 적법한 선택권이라고 주장하며 핵 무장 프로그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
-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용철 참사관은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 회의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륙 간 로켓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자기 방어를 위한 적법하고,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함.
- 주용철 참사관은 “미국의 적대 정책과 핵 위협이 아무런 제지 없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자위적 핵 억지력을 협상 테이블에 결코 놓거나, 핵 무장력 강화를 위한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전향적 변화 없이 핵 포기를 위한 협상에는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

2017. 8. 23.

■ **美 국무장관 “北 도발 자제에 만족…대화의 길 신호 기대”(연합뉴스)**

- 렉스 텔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이 과거와는 달리 어느 정도 수준의 자제를 분명히 보여준 데 대해 만족한다”고 말함.
- 텔러슨 장관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새 전략발표와 관련한 후속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에 앞서 “북한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안을 채택한 이래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도발 행위들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이를 주목하고 인정하고 싶다”고 강조함.

■ **北 단체, UFG 연습 비난…“경거망동 말아야”(연합뉴스)**

- 북한은 23일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또 비난하며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의 대외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UFG에 대해 ‘도발적인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멸적의 보복 의지로 피를 끓이고 있는 우리가 핵 화약고 위에서 불장난질을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행태를 결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함.
- 담화는 “미국은 맞선 상대가 핵보유국, 대륙간탄도로켓 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되며 제 땅은 안전하고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여기던 지난 시기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함.

2017. 8. 24.

■ **北 단체, 미군 수뇌부 방한 비난…“침략전쟁 행각”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24일 미국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 핵심 수뇌부의 최근 방한을 “북침핵전쟁 각본을 확인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한 침략전쟁 행각”이라고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단체인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각일각 첨예해지고 있는 때에 미 군부 우두머리들이

- 남조선에 끌어들어 전쟁 광기를 더욱 고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담화는 “우리의 보복이 두려워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미국이 핵 전략자산들을 대신하여 군부 우두머리들 따위나 몇 놈 파견하는 것으로 그 누구를 놀래어보려고 잔피를 부리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함.

나. 북·중 관계

2017. 8. 21.

■ “왕이 中외교부장, 리용호 北외무상에 도발중단 엄중경고”(연합뉴스)

- 중국이 이달 초 필리핀에서 열린 북한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에 도발 중단을 엄중하게 경고한 사실을 한국 측에 알렸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힘.
- 외교부는 이날 강경화 장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에 앞서 외통위에 배포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지난 6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같은 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도발 중단을 엄중히 경고했다고 우리 측에 설명했다”고 밝힘.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7. 8. 23.

■ 러시아 대규모 무기전시회에 북한 대표단 참석(연합뉴스)

- 모스크바 인근 쿠빈카 지역의 ‘파트리엇’(애국자) 군사공원에서 22일(현지시간) 연례 무기 전시회인 ‘국제군사기술포럼 군(軍)-2017(Army-2017)’이 개막함.
- 북한 대표단도 첫날 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무기에 대한 큰 관심을 표시함.
- 윤동현 인민무력성 부상(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던 지난해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 무관부에서 2명의 군 고위 인사가 대표로 참석했고, 전시회장을 둘러보는 민간인 5명의 모습도 포착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8. 21.

■ BBC 내달 대북방송 개시…“북한주민에 객관적 정보 전파”(연합뉴스)

- 영국 BBC방송이 다음 달부터 북한 주민을 청취자로 겨냥한 단파 라디오 방송에 들어가는데, 프란체스카 언스워스 BBC월드서비스 국장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 인터뷰를 통해 북한 정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힘.
- 언스워스 국장은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성적이고 위험한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매일 밤 북한 방송에 나오는 한 여자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다는 게 끔찍하지 않느냐”고 말함.
- 언스워스 국장은 대북방송이 매일 30분 동안 한밤중에 전파될 예정이라서 북한 주민들이 이불 속에서 몰래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대북방송을 두고 북한은 BBC에 반대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짐.

2017. 8. 22.

■ “북한, 시리아 화학무기 개발기관과 두 차례 거래 적발”(연합뉴스)

-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조사하던 독립 전문가그룹이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38쪽의 극비 보고서를 입수해 지난 6개월 동안 시리아로 가던 북한의 화물이 두 차례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함.
-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의 2개 회원국이 시리아로 가던 북한의 화물을 차단했으며, 다른 회원국 1곳이 유엔 측에 “이 화물은 북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시리아 간 계약의 일부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함.
- 또 “패널들이 북한과 시리아가 화학물질과 탄도 미사일, 재래무기를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중에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지만, 보고서는 북한의 화물이 언제, 어디서 적발됐는지와 구체적인 화물의 내용은 밝히지 않음.

2017. 8. 23.

■ 英 외무부 “필수적 경우 제외한 모든 北여행 자제”(연합뉴스)

- 영국이 대북 여행주의보를 갱신해 자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함.

- 23일 영국 외무부 홈페이지를 보면 영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갱신한 대북 여행주의보에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를 포함, 지난해와 올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전함.
- 영국 외무부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 위협이 여전해 역내 불안정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평양의 일상이 평온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안보 상황은 북한 당국의 사전 통보와 경고 없이 급변할 수 있다고 설명함.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8.21		방한 미 의회 대표단, 여전한 한반도 긴장에 우려(자유아시아방송)
	8.22	강경화, 전작권 조속전환·미사일지침 개정 필요성 美에 설명(연합뉴스)	
			미군 핵심수뇌부 “한국방어 모든역량 제공…외교가 중요”(연합뉴스)
		김현종 “한미FTA 개정협상 동의 안했다…이견만 확인”(연합뉴스)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난 첫 한미FTA 개정 논의(연합뉴스)	
	8.23		美 USTR대표 “한미FTA 개정, 불균형 장벽 해소할 기회”(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8.21		추귀홍 中대사 “사드, 한중관계 발전 가장 큰 장애물”(연합뉴스)
			中, 한미을지훈련에 “한반도 긴장 완화 도움 안된다”(연합뉴스)
	8.23		中외교부, 한중수교 25주년에 “초심 잃지말자” 강조(연합뉴스)
			냉랭한 中주최 한중 25주년 리셉션…반쪽짜리 행사(연합뉴스)

		한중정상, 수교25주년 축하메시지 교환...“관계 매우 중시”(연합뉴스)	
		8.24	中외교부 “한중수교 25년 성과 소중하다...그러나 사드는 반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8.22		日언론 “文대통령-日의원단 회동서 위안부 입장 평행선”(연합뉴스)
			고노 日외무상 “韓 징용공 문제, 완전히 해결 끝났다” 주장(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8.24		러시아 “한·미 을지훈련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 안돼”(연합뉴스)
		러시아 폭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전투기 발진(연합뉴스)	
	8.25	강경화 외교 모스크바 도착...오늘 한·러 외교장관회담(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8.19	美USITR, 中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 무역관행 조사 착수(연합뉴스)	
			中, 美 '301조사' 착수에 강력 반발...“일방조치 좌시 않을 것”(연합뉴스)
	8.20		中, 美 301조 조사 착수에 연일 비난...“조사 대가 클 것”(연합뉴스)

	8.21	“美, 북핵해결 안되면 동북아 방위태세 강화입장 中에 통보” (연합뉴스)	
			中상무부, 美 301조 조사에 강력 반발...“모든 조처 취할 것”(연합뉴스)
	8.22	미 재무부, 북한핵 개발 관련 중·러 개인·기관 추가 제재(자유아시아방송)	
		미 의회 대표단 “중국, 대북 원유공급 중단해야”(자유아시아방송)	
	8.23		美의 北발미 추가제재에 中 강력반발 “실수 즉각 정정하라”(연합뉴스)
			中, ‘종교자유 억압’ 미국 지적에 발끈...“상당수가 혐오감”(연합뉴스)
	8.24		중국 기업·개인 겨냥한 美 제재에 中, 연일 ‘십자포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8.19	美, 냉동 쇠고기 수입제한 日에 ‘우려’ 표명(연합뉴스)	
		美폭격기, 센카쿠 상공서 日전투기와 첫 훈련...“中 반발 예상”(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8.21	美, 러시아인에 非이민비자 중단...자국 외교관 추방에 맞제재 (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8.19	中, 日731부대 세균전·마루타 증거 ‘페스트균 배양기’ 등 공개 (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8.23	러시아, 북방영토 경제특구로 정식 지정...일본 강력 반발(뉴시스)
-------	------	---------------------------------------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8. 21.

■ 방한 미 의회 대표단, 여전한 한반도 긴장에 우려(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을 방문중인 제프 머클리 미국 상원의원은 21일 미국과 북한 관계가 여전히 매우 긴장상태라고 경고함.
- 미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중인 에드 마키 (메사추세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한반도 긴장상황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함.
-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미 의원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제한적인 대북 군사적 방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2017. 8. 22.

■ 강경화, 전작권 조속전환·미사일지침 개정 필요성 美에 설명(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방한 중인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접견에서 동맹 발전 및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과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외교적 지원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함.
- 이에 해리스 사령관은 이해와 지지를 표시했으며,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동력은 외교이며, 군사적 조치들은 외교가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함.

■ 미군 핵심수뇌부 “한국방어 모든역량 제공...외교가 중요”(연합뉴스)

- 존 하이트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은 22일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해리 해리스

- 미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공군 중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방어를 위해 미 전략사령부가 가진 우주, 사이버, 억제, 미사일방어 등 모든 역량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한국과 괌 등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 등 미사일방어 자산을 거론하고 “우리의 미사일방어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함.
 -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은 최근 존 S. 매케인함 사고로 미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작전을 중단한 것과 관련, “미국이 지역 방어를 못할 것으로 인식한다면 무모한 일”이라며 “미 해군은 언제든지 한반도와 지역을 방어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힘.

■ 김현종 “한미FTA 개정협상 동의 안했다…이견만 확인”(연합뉴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는 조속한 개정 협상을 제의했으며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힘.
-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측은 이번 회기에서 향후 일정을 포함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미국 적자의 원인이나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서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발언함.
- 김 본부장은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호호혜적으로 이익 균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며 “우리 측은 양측 전문가들이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조사하자고 제안했고 미국 측 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힘.

■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난 첫 한미FTA 개정 논의(연합뉴스)

- 한미 통상 당국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을 논의하는 첫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함.
- 미국은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한국은 한미 FTA가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며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응수함.
-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가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2배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FTA를 개정하자고 재차 요구했으며, 이에

한국은 FTA의 상호 호혜적 측면을 강조하며 먼저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자고 제안함.

2017. 8. 23.

■ **美 USTR대표 “한미FTA 개정, 불균형 장벽 해소할 기회”(연합뉴스)**

-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여러 분야의 불균형 장벽을 없애겠다”고 발언함.
-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8시간가량 첫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영상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함.
- 이어 “USTR은 오랫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 기업들을 배제하거나 미국 지식재산권에 돈을 물리는 부담스러운 규제들을 다뤄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이번 협상이 이러한 문제와 또 다른 장벽들을 해소해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나. 한·중 관계

2017. 8. 21.

■ **추귀홍 中대사 “사드, 한중관계 발전 가장 큰 장애물”(연합뉴스)**

-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21일 오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성균중국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수교 25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축사에서 “사드 문제는 현재 중한관계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고, 수교 이후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발언함.
- 추 대사는 이어 “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중한관계를 하루 빨리 정상적 궤도로 복귀시키려면 초심·신심·성심·민심이 필요하다”며 먼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서로의 핵심적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항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선린우호 관계를 만들고, 함께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함.
- 추 대사는 25주년을 앞둔 한중수교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번영의 흐름을 따른 것이었고, 양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는 역사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며 “수교 이후 중한관계의 커다란 발전 성과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모두 이에 대해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 中, 한미일지훈련에 “한반도 긴장 완화 도움 안된다”(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 기자가 한국과 미국이 방어 목적의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한 데 대한 중국 측 평론을 요구하자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기존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그는 이어 “우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현재 긴장 정세 완화와 각국의 대화 촉구 노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함.
- 그는 또한 “우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당사국(북한)이 중국이 제기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제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길 촉구한다”면서 “긴장 정세 완화와 조속한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핵 문제의 적절한 해결에 건설적인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발언함.

2017. 8. 23.

■ 中외교부, 한중수교 25주년에 “초심 잃지말자” 강조(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 기자가 한중 수교 25주년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중국 측 평론을 요구하자 “한중 수교 25주년 이래 양국은 상호 이해와 존중의 원칙으로 한중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진해 왔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줬고 지역 평화 안정과 번영에 공헌했다”고 평가함.
- 또한 “중국 측은 한중 관계 발전을 중시하며 우리는 한중 수교 25주년이라는 계기를 통해 한국 측과 수교 이래 경험과 교훈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정리하길 바란다”고 발언함.
- 화 대변인은 아울러 “양국이 초심을 잃지 않고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며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 냉랭한 中주최 한중 25주년 리셉션…‘반쪽짜리 행사’(연합뉴스)

- 중국 측은 23일 오후 중국 대외우호협회 주관으로 베이징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함.
- 이날 행사에는 중국 측에서 천주(陳竺)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차오웨이저우(曹衛洲) 전인대 외사위 부주임, 왕야쥔(王亞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장조리, 천하이(陳海)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한국 측에서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 등이 참석함.

- 초청된 한국 측 인사가 40여명, 중국 측이 60여명 등 총 100여명 수준에 불과해 25주년 기념 행사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초라했으며, 중국에서 전인대 상무 부위원장이 나오고 김장수 대사가 얼굴을 내밀면서 ‘구색 갖추기’에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음.

2017. 8. 24.

■ **한중정상, 수교25주년 축하메시지 교환…“관계 매우 중시”(연합뉴스)**

-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4일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1992년 수교 이래 25년 동안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정부와 국민이 긴밀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전했으며, 본인도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힘.
- 시 주석은 메시지에서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정치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함.

■ **중외교부 “한중수교 25년 성과 소중하다…그러나 사드는 반대”(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수교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했으며 서로 그 성과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밝힘.
- 화 대변인은 이어 “현재 정세에서 한국이 수교 25년의 경험과 교훈을 되돌아보고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적인 행동으로 민감한 문제와 불일치를 해소해 관계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거론함.
- 그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고 일관돼 있으며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다. 한·일 관계

2017. 8. 22.

■ **日언론 “文대통령-日의원단 회동서 위안부 입장 평행선”(연합뉴스)**

- 일본 언론들이 22일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郎) 회장의 문 대통령 예방소식을 자세히 전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견해차를 확인했다고 보도함.
-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문 대통령이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누카가 회장 등이 “우려하는 국민(일본인)이 많다”고 말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함.
- 이 신문은 이어 문 대통령이 오히려 한일 정부 간 위안부합의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전 입장을 반복했다면서, 위안부합의에 대해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도함.

■ **고노 日외무상 “韓 징용공 문제, 완전히 해결 끝났다” 주장(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완전히 해결이 끝난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NHK가 22일 보도함.
- NHK는 지난 3일 취임한 고노 외무상이 이날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징용공 피해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거론했다고 보도함.
- 고노 외무상은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도 재차 표명했다고 방송은 보도함.

라. 한·러 관계

2017. 8. 24.

■ **러시아 “한·미 을지훈련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 안돼”(연합뉴스)**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UFG 훈련과 관련 “정례적인 대규모 한·미 군사해상훈련 실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촉진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그는 “모든 당사국에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한다”면서 “해당 지역에 군비가 집중되면서 어떤 경솔한 행보나 의도치 않은 사고도 군사충돌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함.
- 자하로바는 이어 “당사국들이 상호관계기초와 평화적 공존 원칙에 합의할 때

핵·미사일 실험과 군사훈련 필요성은 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며, “러시아는 필요할 경우 한반도 문제 중재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함.

■ 러시아 폭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전투기 발진(연합뉴스)

- 러시아 공군의 장거리전략폭격기 편대가 지난 23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시적으로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한 것으로 확인됨.
- 군 관계자는 24일 “러시아 항공기 편대가 어제 오전 KADIZ에 들어와 우리 공군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했다”고 밝힘.
- 그는 “러시아 항공기 편대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함.

2017. 8. 25.

■ 강경화 외교 모스크바 도착…오늘 한·러 외교장관회담(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2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 러시아 외무부 안드레이 쿨릭 아주1국장, 안드레이 밀랴예프 의전국 부국장 등의 영접을 받았음.
- 강 장관은 25일 오전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영빈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임.
- 양국 외무수장은 회담에서 내달 6~7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및 한·러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긴장 사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견해를 교환할 예정임.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8. 19.

■ 美USTR, 中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 무역관행 조사 착수(연합뉴스)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함.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이해 관계자와 기타 정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중대사안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언함.

- 미 언론은 USTR의 조사가 앞으로 1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 中, 美 ‘301조사’ 착수에 강력 반발...“일방조치 좌시 않을 것”(연합뉴스)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9일 USTR의 지재권 침해조사 착수 사실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미 행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이 중미 무역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함.
- 신화통신은 중국이 최근 수년간 행정과 사법 측면에서 지재권 보호에 노력해왔고 국제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성과를 거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서 중국은 USTR이 이런 객관적 사실을 존중해서 신중히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함.
- 중국 상무부는 또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중국중앙(CC)TV와 관영 환구망도 USTR의 조사착수가 양국 무역관계에 잠재적 해악이 될 것으로 각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함.

2017. 8. 20.

■ 中, 美 301조 조사 착수에 연일 비난...“조사 대가 클 것”(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 논평에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일종의 무역 보복 조치”라며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색채가 매우 강한 이번 조치로 중미 무역관계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 인민일보는 “이번 조사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며 “일단 무역 보복 조치를 유발해 미국 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것이다”고 강조함.
- 중국 관영매체들은 USTR의 지재권 침해조사 착수 결정 이후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미 행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이 중미 무역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음.

2017. 8. 21.

■ “美, 북핵해결 안되면 동북아 방위태세 강화입장 中에 통보”(연합뉴스)

-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동북아에서 자국의 방위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중국에 통보하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강하게 촉구한 것으

로 21일 알려짐.

- 북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지난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간의 회담 등 계기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역내 ‘방위태세’(defense posture)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짐.
- 한 국책 연구기관의 미국 전문가는 “미측이 역내 방위태세 강화를 언급했다면 그것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대북 군사적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동시에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일 것”이라며 “미국의 최근 국방정책에 비춰볼 때 주한·주일미군 증강 배치 측면보다는 동해로의 핵함모 파견 등 전략무기 파견 강화를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고 분석함.

■ **중상무부, 美 301조 조사에 강력 반발…“모든 조치 취할 것”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는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지식재산권 침해조사를 시작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무시하고 국내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태에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밝힘.
- 상무부는 “마라라고 미중 정상회의 이후 양국은 상호 공영의 원칙으로 한 전면적인 경제 대화의 틀 아래 양자 무역에 관해 순조롭고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런 시기에 301조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미국 산업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결연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이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국은 면밀히 지켜보겠다”면서 “중국의 합리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함.

2017. 8. 22.

■ **미 재무부, 북한핵 개발 관련 중·러 개인·기관 추가 제재(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 등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함.
- 미국 재무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등의 개인 6명과 10곳의 기관을 제재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으며,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세력을 목표

- 아래 북한에 압박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측은 미국의 추가독자제재가 미·중 양국 간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힘.

■ **미 의회 대표단 “중국, 대북 원유공급 중단해야”(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을 방문한 미국 의회 대표단이 2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대북 경제적 압박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함.
- 대표단 단장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당,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간사)은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발언함.
- 제프 머클리 의원도 “북한의 핵 야망을 저지한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대한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중국과의 동반관계(파트너십)가 요구된다”고 밝힘.

2017. 8. 23.

■ **美의 北발미 추가제재에 中 강력반발 “실수 즉각 정정하라”(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가하자 중국이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며 이를 고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 23일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 정부의 이번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성명을 통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체계에서 벗어난 일방적 제재를 반대한다”면서 “특히 어떤 나라가 자국법에 따라 중국 개인과 기업을 확대 관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성명은 이어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 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과 개인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면 이는 중국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미국이 즉각 이런 잘못을 고쳐서 유관 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함.

■ 中, '종교자유 억압' 미국 지적에 발판..“상당수가 혐오감”(연합뉴스)

- 23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16년판 '미국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종교를 통제하고 활동가들과 개인의 종교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은 상당수 중국인이 종교에 혐오감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평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으며, 중국 정부는 최근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보고서가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종교 상황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보도함.
- 신문은 또한 문제의 보고서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반발을 불러왔으며 중국 누리꾼 대다수는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7. 8. 24.

■ 중국 기업·개인 겨냥한 美 제재에 中, 연일 '십자포화'(연합뉴스)

-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발표 직후인 23일 중국 외교부가 “일방적인 제재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힌 데 이어 24일 중국 전문가들과 관영 매체들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결의 미이행의 오명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일제히 비판함.
- 관변학자인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유엔 체제를 벗어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중국의 자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별도의 사평(社評)을 통해 “미국이 만약 중국 기업과 개인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유엔을 통하거나 중미 외교 채널을 통해 교섭을 제기해야지 자국법에 따라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나. 미·일 관계

2017. 8. 19.

■ 美, 냉동 쇠고기 수입제한 日에 '우려' 표명(연합뉴스)

- 미국이 일본과 대북문제에 대해선 공조 방침을 확인했지만, 일본의 미국산 냉동 쇠고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을

- 만나 일본 정부가 이달부터 발동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 미일은 같은 날 개최된 외교·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2+2)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압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미사일 방어(MD) 강화 방침에도 합의함.

■ **美폭격기, 센카쿠 상공서 日전투기와 첫 훈련…“中 반발 예상”(연합뉴스)**

- 미군 폭격기와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지난 15일 중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을 겪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상공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은 B1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가 지난 15일 센카쿠 주변에서 공동훈련을 벌였다고 18일(현지시간) 밝힘.
- 미일 양국은 그간 규슈(九州) 주변 상공에서 훈련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공동훈련을 벌인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보도함.

다. 미·러 관계

2017. 8. 21.

■ **美, 러시아인에 非이민비자 중단…자국 외교관 추방에 맞제재(연합뉴스)**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21일(현지시간) 자체 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러시아 내 모든 미국 공관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비(非)이민비자 발급 업무를 오는 23일부터 일제히 중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모스크바 대사관에서만 해당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 모스크바를 제외한 다른 지역 미국 외교 공관(총영사관 등)에서의 비자발급 업무는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고 대사관은 설명함.
- 미국 대사관은 이 같은 조치가 러시아의 미국 공관 직원 축소로 인해 취해졌으며 러시아 측의 조치가 유지되는 한 미국 측의 비자발급제한조치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함.

라. 중·일 관계

2017. 8. 19.

■ 中, 日731부대 세균전·마루타 증거 ‘페스트균 배양기’ 등 공개(연합뉴스)

-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소재 ‘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죄증(罪證·범죄증거) 진열관’은 일제시기 만주에서 731부대가 저지른 세균전 및 생체실험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를 발표함.
-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731부대 죄증진열관은 일본 관동군 731부대가 페스트균을 기른 전류 배양기, 세균전 실험 전범 자백서, 마루타(丸太·생체실험 희생자) 운송서류 등의 새로 발굴한 자료를 공개함.
- 진청민(金成民) 731부대 죄증진열관 관장은 “이 캐비닛은 일반 캐비닛이 아니라 731부대가 하얼빈에서 페스트균을 만들어 세균전 실험을 할 때 사용된 전문도구”라며 “관동군 731부대가 세균전 실험을 자행한 확실한 증거”라고 밝힘.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7. 8. 23.

■ 러시아, 북방영토 경제특구로 정식 지정…일본 강력 반발(뉴시스)

- 러시아 정부는 23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북방영토(남쿠릴열도)를 경제특구로 지정했다고 산케이 신문과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함.
- 일본과 러시아는 지난 17일 북방영토에서 공동 경제활동과 관련해 조정하는 외무차관급 협의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했으며 조기에 시행할 사업에 대해선 9월 상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을 보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음.
-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특구 지정으로 인한 양국 간 갈등으로 합의 향방이 불투명해짐.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8.19	“美단체,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北인권 광고”(연합뉴스)
	8.21	BBC 내달 대북방송 개시…“북한주민에 객관적 정보 전파”(연합뉴스)
		벨기에 NGO “북, 인도주의 위기국”(자유아시아방송)
	8.22	러시아, 북한 근로자 월급 위안화로 지불(자유아시아방송)
		북한자유연합 오는 9월 “전 세계에서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미국의소리)
	8.23	영국 외무부 “필수적 경우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 자제”(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8.22	유엔 ‘북한 모유 수유율 전세계 7번째로 높아’(미국의소리)
	8.24	미 농무부 “북한 올해 쌀 160만 수확 전망”…지난해와 같은 수준(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남한동향	8.23	북한인권단체, 북한과 동독 인권상황 비교 세미나(연합뉴스)
		통일부 “북한과 대화노력 지속·인도지원 추진”…업무보고(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8.22	링크, 탈북자 올해만 33명 총 671명 구출(자유아시아방송)
	8.23	부시 전 대통령 연설 행사에 탈북 난민 장학금 모금 예정(미국의소리)
대북지원	8.19	북한 가뭄 피해 실태와 국제사회 대응(미국의소리)
	8.22	아일랜드, 올해 북 가뭄·홍수 600만 달러 지원(자유아시아방송)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8. 19.

■ “美단체,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北인권 광고”(연합뉴스)

- 미국의 단체가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스퀘어에서 북한 인권을 소재로 한 전광판 광고를 시작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함.
- VO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소재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북한 인권과 관련된 10초 분량의 광고 3개를 20분마다 한 번씩 교대로 상영하고 있음.
- 상영되는 광고는 북한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고통받고 있다는 문구가 담긴 광고, 밤에 불빛으로 빛나는 남한과 암흑 속의 북한을 담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위성사진을 활용한 광고, 철조망에 걸린 사람 영상 등이라고 VOA는 전함.

2017. 8. 21.

■ BBC 내달 대북방송 개시…“북한주민에 객관적 정보 전파”(연합뉴스)

- 영국 BBC방송이 다음 달부터 북한 주민을 청취자로 겨냥한 단파 라디오 방송에 들어감. 프란체스카 언스워스 BBC월드서비스 국장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 인터뷰를 통해 북한 정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힘.
- 언스워스 국장은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성적이고 위험한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매일 밤 북한 방송에 나오는 한 여자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다는 게 끔찍하지 않느냐”고 말함.
- 가디언은 BBC 대북방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호전적 발언이 교차하며 긴장이 고조된 지 몇 주 만에 출범한다는 시점을 주목함.
- 언스워스 국장은 북한 정권의 반대 등과 더불어 발족이 조심스럽지만 불안정한 정치 상황 때문에 정당성을 얻는 면도 있다고 밝힘.

■ 벨기에 NGO “북, 인도주의 위기국”(자유아시아방송)

- 벨기에, 즉 벨지오의 한 비정부 기구가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어려워졌다면서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국’으로 분류함.
- 전 세계 국가들의 인도주의 상황과 필요를 평가하는 벨기에 비정부기구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가 ‘국제 위기 평가’(Global Emergency Overview)라는 국가별 보고서를 공개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도주의 위기국(Humanitarian Crisis Country)’으로 분류됨. 또한 이 기구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성은 ‘극히 제한적(extremely limited)’이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렵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이 기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등 국제 제재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함.

2017. 8. 22.

■ 러시아, 북한 근로자 월급 위안화로 지불(자유아시아방송)

-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노임이 중국 인민폐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유엔의 대북제재로 달러송금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북한은 러시아 당국에 현금대신 현물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 북한당국이 올해 초부터 러시아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월급으로 달러대신 중국인민폐를 지급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힘. 러시아 기업들이 노임을 달러로 받겠다는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소식통들은 언급함.
- 최근 연락이 닿은 북한의 한 소식통은 “러시아에 파견돼 목재가공 일을 하며 지난 해 까지는 월급 50달러를 받았는데 올해 초부터는 중국인민폐 3백 위안씩 받았다”면서 “기왕이면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싶어 최근에 중국 변방으로 일자리를 옮겼다”고 말함.

■ 북한자유연합 오는 9월 “전 세계에서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 (미국의소리)

- 워싱턴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오는 9월22일 워싱턴을 비롯해 중국 영사관이 있는 전세계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행사 이틀 뒤인 9월 24일은 중국이 198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날로, 북한자유연합은 해마다 이 날에 맞춰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이들에게 고문과 구금, 많은 경우 처형을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솔티 대표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행동은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이며, 잔인하고 불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함.
-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같은 끔찍한 일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함. 솔티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간단하다고 말함. 중국은 국제적 의무를 존중해 탈북자들에 대한 끔찍한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임.

- 솔티 대표는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해 유엔난민기구가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가 즉각 해결될 것이라고 말함.

2017. 8. 23.

■ 영국 외무부 “필수적 경우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 자제”(미국의소리)

- 영국 외무부는 22일 갱신한 북한여행 주의보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함.
- 영국 외무부는 지난 7월의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 지난해와 올해 일련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높다고 지적함. 특히 추가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 같은 위협은 역내 불안정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이어, 수도 평양의 일상적인 삶이 평온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안보 상황은 북한 당국의 행동에 대한 사전통보와 사전경고 없이 급변할 수 있다고 지적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8. 22.

■ 유엔 ‘북한 모유 수유율 전세계 7번째로 높아’(미국의소리)

- 북한에서 22일 세계 모유 수유 주간 기념행사가 열림. 유엔에 따르면 북한의 생후 6개월 미만 완전 모유 수유 비율은 전세계에서 7번째로 높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2017년 세계 어머니 젖 먹이기 주간에 즈음한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함. 이날 행사에는 북한 보건 부문 당국자들과 아기 어머니들, 유엔기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영양 활동과 어린이 사망률 실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2016년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 기준으로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은 28%로 나타남. 북한 산모 100명 중 28명이 모유 수유를 한 것임. 또 생후 6개월 미만 북한 아기들이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비율은 69%로 나타남. 이는 전세계 136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것임. 하지만 지난 2013년 생후 6개월 미만 북한 아기들의 완전 모유 수유

비율이 89%였던 것에 비해서는 많은 줄어듦.

- 세계 평균만 보더라도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은 44%로, 6개월 미만 완전 모유 수유율 39%보다 높음. 북한은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에 비해 6개월 미만 완전 모유 수유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유엔은 생후 2년 간 모유 수유를 계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북한의 경우 2살까지 모유를 먹는 비율은 22%로 나타남.

2017. 8. 24.

■ **미 농무부 “북한 올해 쌀 160만t 수확 전망”…지난해와 같은 수준(미국의소리)**

-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일 것이라고 미 농무부가 전망함. 미 농무부는 또 북한이 올해 쌀 8만t을 수입할 것으로 추정함.
- 미 농무부 경제조사서비스는 최근 발표한 ‘쌀 전망 보고서 Rice Outlook: August 2017’에서 북한이 올 가을 추수에서 도정 후 기준으로 160만t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봄, 지난해 160만t의 쌀을 생산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임.
- 미 농무부의 네이든 차일즈 수석 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전망은 북한의 8월까지의 날씨와, 강우 패턴, 위성 사진, 농자재 현황, 관개 상황, 대체 작물 재배 상황과 식량 가격 등을 토대로 나왔다고 밝힘.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8. 23.

■ **북한인권단체, 북한과 동독 인권상황 비교 세미나(연합뉴스)**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3일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등과 함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과 구 동독의 인권상황을 비교하는 내용의 세미나를 개최함.
- 이날 세미나에는 2명의 탈북민과 동독을 탈출해 서독에 정착한 독일인이 참석해 자신들이 겪었던 인권 침해에 대해 증언함.
- 독일연방 독재청산재단 및 사단법인 독일 협회 ‘시대의 증인’으로 활동하는 페터 코입 씨는 1982년 동독 탈출을 시도하다가 동독 국가보안부(슈타지)에 붙잡혀 3개월간 조사를 받으며 수면 고문과 암실 고문 등을 경험했다고 말함.
- 북한 보위부에 수감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해 국내에 정착한 뒤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규민 씨는 코입 씨의 수감생활 경험을 듣고 나서 북한의

수용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라며 북한의 인권상황이 동독보다 훨씬 열악하다고 주장함.

■ 통일부 “北과 대화노력 지속·인도지원 추진”...업무보고(연합뉴스)

- 통일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밝힌 ‘베를린 구상’ 기초 아래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외교·통일분야 업무보고에서 ▲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등 2건의 통일부 핵심정책 과제를 보고함.
- 통일부는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힘.
- 대북 인도적 지원은 민간 지원→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당국 차원의 직접 지원 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 영유아 등 취약계층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민간 지원은 적극적으로 돕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다만 당국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임.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8. 22.

■ 링크, 탈북자 올해만 33명 총 671명 구출(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 링크가 올 들어 중국 내 탈북자 33명을 구출해 제3국 정착을 도움. 링크는 자체 웹사이트와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에 공개한 통계와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올들어 8월 현재까지 33명의 탈북자를 구출했다고 밝힘.
- 2010년 중점사업으로 ‘The Hundred’ 즉 100명의 탈북자 구출운동을 시작한

- 후 지금까지 중국에서 탈북자 671명을 구출해 한국과 미국 등에 정착하도록 도움.
- 링크가 구출한 탈북자 중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368명으로 대다수이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도 32명에 달함.
 - 링크는 탈북자 구출활동 이외에 탈북자의 제3국 정착 지원, 탈북자 교육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벌이고 있음.

2017. 8. 24.

■ **부시 전 대통령 연설 행사에 탈북 난민 장학금 모금 예정(미국의소리)**

-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한 민간 행사에서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 행사가 함께 열림.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정책연구소는 앞서 탈북 학생 8명에게 첫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었음.
- 뉴욕에 있는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다음달 28일 열리는 이 단체 설립 60주년 기념만찬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고 발표함.
- 부시 전 대통령은 이 단체 설립자인 제임스 밴 플리트 전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밴 플리트 상을 지난 2005년에 수상함.
-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특히 이날 저녁 만찬 행사 중 배움의 기회를 추구하고 있는 탈북 난민들을 지원하는 부시센터를 위해 모금 행사를 한다고 밝힘.
-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센터는 지난달 미국 내 탈북 난민 8명을 선정해 2만5천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었음.

5. 대북지원

2017. 8. 19.

■ **북한 가뭄 피해 실태와 국제사회 대응(미국의소리)**

- 북한에서 가뭄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설사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유엔은 북한이 올해 2001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힘.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황해도와 평안도, 남포시 등 주요 곡창지역이 비정상적으로 건조함. 이들 지역은 북한의 공공배급체계에 필요한 식량의 43%를 생산하고 있음. 이에 따라 6월 말 수확한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했고, 쌀 등 주요 작물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임.

-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빈센트 마틴 중국·북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료에서 “올 가을 쌀 수확량이 전례 없는 규모인 2백만t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주민들의 식량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밝힘.
- 유엔은 가뭄의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의 영양과 보건 상태가 매우 악화됐다고 밝힘. 유엔은 북한 당국의 보고를 인용해 가뭄 피해 지역에 5세 미만 영양실조 어린이가 4%에서 19%로 증가하고, 설사병 환자도 15%에서 32%로 많이 증가했다고 밝힘.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가뭄 피해에 대응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630만 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음. 올 상반기 ‘자금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60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로 6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자금이 아직 전달되지는 않음.

2017. 8. 22.

■아일랜드, 올해 북 가뭄·홍수 600만 달러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전 세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북한을 돕기 위한 구호자금이 계속 모아지고 있음. 아일랜드는 올해 북 가뭄과 홍수피해복구 지원비 600만 달러를 지원함.
- 아일랜드 외교통상부 산하 아이리쉬 지원국은 21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재난발생 국가를 돕기 위한 구호기금 9백만 유로, 미화로 1천58만 달러를 유엔에 기부했다고 밝힘.
- 이로써 올 한해 동안 아일랜드 정부가 서프(CERF), 즉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에 전달한 구호기금만 2천200만 유로, 미화로 2천587만 달러에 이름.
- 아일랜드는 전체 구호기금 기부국가 가운데 8번째로 많이 냄. 아일랜드가 낸 구호기금 가운데 600만 달러는 가뭄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 나눠줄 구호물품을 확보하고 전달하는 데 쓰임.